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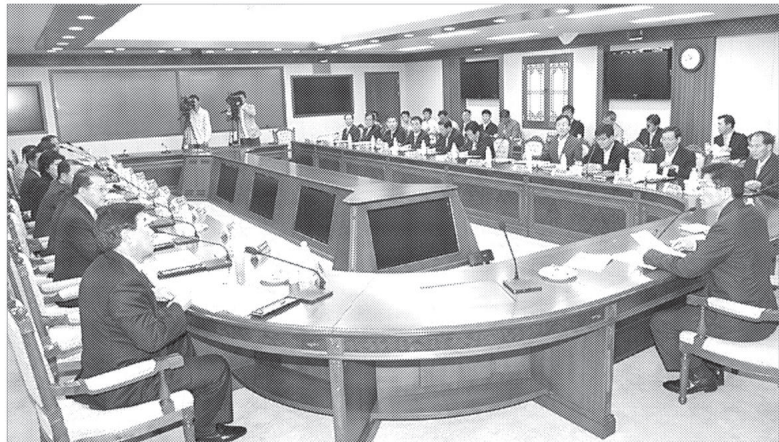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강구하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도내 골프장 경영인 간담회

경기도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시행과 관련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수도권 접경지역 소재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과 발전방향 모색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강원도 접경지역 골프장 경영인 대표자 19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최근 관심사항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골프장만 감세 혜택이 주어지려 최근 어려운 경영상황에 덧붙여 수도권 골프장은 심각한 경영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인력감축 및 도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간담회에서 수도권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는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에 이따른 지역별 차등과세는 형평과세에 반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경기도는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시행과 관련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수도권 접경지역 소재 도내 골프장 경영인들과 발전방향 모색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골프업계는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차등과세

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필담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그중

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의 희망이 상실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제한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더 대폭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골프장의 경쟁력강화 분야는 향후 골프장 경영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숙박, 운동, 관광 등과 연계한 종합레저시설로의 변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지역 골프장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면서 향후 수도권의 골프장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유명골프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명품 골프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고 간담회시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조를 약속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지역신문협의회 특별인터뷰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듣는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논쟁이 뜨겁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자는 주장과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국언론 창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풀뿌리 신문협의회인 한국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중기 김천신문 대표, 수석부회장 이평선 충청세종신문 대표)는 이완구 충남도지사 만나 그 주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공산주의적 발상 언행 매우 부적절”

▶김문수 경기지사의 발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경기지사께서는 정부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행복도시건설 등과 관련,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의 언행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도를 넘은 표현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권내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임대산업 용지를 조성 저가공급,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공장신·증설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기업 유치에 큰 타격이 우려돼, 오히려 지방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지자체들이 손해를 본 게 사실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64년부터 수 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또한 수도권에 각종 집적시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2006년 수도권 순 유입인구 51만7,749명으로 연평균 12만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만7,600명 순 유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발언이 다소 자극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취지나 뜻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는 접경지역에 있어 보호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개별적 특별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로서 국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실행한다면 건설비용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는 등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수권과 비수도권은 선의의 경쟁대상이며 상호 보완적 개념에서 상생의 길이 무엇인가 고

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정책을 놓고 지역간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입장을 이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를 인정하면서 무엇이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 비수도권의 이익을 찾자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수도권 규제 정책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에 의해 손해를 봤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와 수도권 혼잡비용 감소 및 대기오염 피해비용의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2006년) 및 환경부(2007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상생의 길이 무엇인가 고

▶이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발전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도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수도권은 선진국과 경쟁에 필요한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 기능, 고급인력, 서비스 기능을 수행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지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호 기능적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상생 발전이 가능하며,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뒷받침을 하고 수도권은 마음껏 세계무대에서 날개를 펼칠 나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최근의 비판이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가 아닌 시야에 대해

보이는 것 그대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지도 공약지침체장을 맡고 있지만, 국가발전에 대한 순수한 걱정 때문이고 지역을 책임진 도시로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경박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담-한국지역신문협회 수석부회장 이평선 회장(충남지역신문협의회 회장)

■정리-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부장

경기도공무원수화경연대회 금상 차지

의정부시 공무원수화동호회 자원봉사 앞장

의정부시 공무원수화동호회 해모수(회장 홍순석)는 제9회 경기도공무원수화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해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된 경기대회에는 경기도내 11개시군에서 11개팀이 참가하여 연극과 노래 등 다양한 수화공연을 펼쳤다.

의정부시는 공무원 11명이 아름다운 세상을 수화로 노래하였으며,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지난 6월 의정부시농아인협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상

영되기도 해 참가한 공무원과 관객들의 많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농아인 및 참석자들은 태안 기름유출 현장에서 농아인들이 자원 봉사하는 장면을 보며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의정부시청 수화동호회 해모수는 올해 8번째 참가했으며, 지난 2005년 대상, 2007년 동상을 차지하는 등 각종경기대회 참가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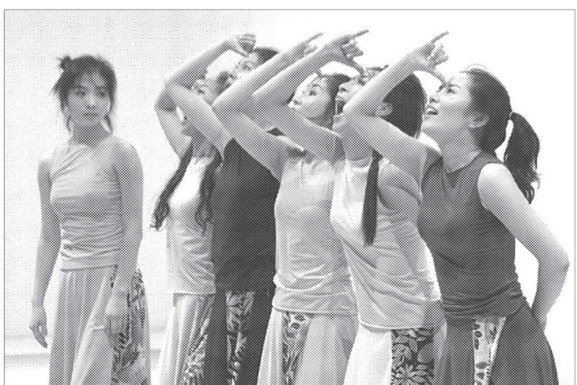


의정부시 공무원수화동호회 해모수(회장 홍순석)는 제9회 경기도공무원수화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해 트로피와 상금을 받았다.

동서양 음악과 춤의 충돌

한국-아일랜드 공동제작 프로젝트

한국-아일랜드 공동제작 프로젝트 동서양 음악과 춤의 충돌 공연이 10월3일 오후5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한국-아일랜드 공동제작 프로젝트 동서양 음악과 춤의 충돌 공연이 10월3일 오후5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NOW 무용단(안무 손인영)과 아일랜드의 Dance Theater of Ireland(안무 Loretta Yurick)의 공동 무대다.

이번 공연은 한국 예술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아일랜드-한국 예술가들의 공동프로젝트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기획으로 한국과 아일랜드 모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와 한국 두 나라의 연주자들과 안무가, 무용수, 기술 스태프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아일랜드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동서양의 음악과 춤이 충돌하는 크로스오버 작업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의 전통악기가 만들어내는 현대적인 감각의 리듬, 건축가들이 참여한 무대미술, 비주얼 아티스트들의 영상 작업, 의상 디자이너들의

의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의상 컨셉 등은 동서양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접합된 새로운 감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무가들은 ‘세계는 하나’라는 기본 컨셉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작품 속에 소통과 만남의 의미를 담고, 세계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아우르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 피부색, 종교, 지리적 차이를 떠나 인간적 만남과 교류를 통한 문화적 소통과 이해가 작품의 모티브이다.

한국 아일랜드의 무용수 및 연주자 등 14명의 아티스트들은 두 개의 작품에 공동으로 출연하며 세계 초연되는 2개의 작품들은 한국과 아일랜드 포함 2008년에만 모두 20회의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KUG JE Transformer



22900V 단상·삼상 배전용 변압기 특고압 절연 단상·삼상 전력용 변압기 정량전력용 변압기(특허 No.10-1993-6001676)

주요생산 및 취급 품목

- 주상 변압기
- 배전용 변압기
- 전력용 변압기
- 일단접지 변압기
- 건식 변압기
- 각종 특수 변압기
- 산업용 트랜스
- 각종 변압기 수리 및 절연유 교체
- BCT Terminal Box
- Sampling Valves
- 주유구캡
- 호흡기(Dehydrating Breather)
- 유면계(Oil Level Gauges)
- 유면 온도계(Oil Level Indicator)
- 방압 안전 장치(Pressure Relief Valves)
- 브흐 홀츠 계전기(Buchholz Relay)
- 질소 봉입 장치(N₂ Gas Equipment)
- 방열기 밸브(Butterfly Valves)
- 온도계(Oil Temperature Indicator)
- 송풍기(Cooling Fan)
- FOA Cooler
- Gas Cooler
- Gas 검출계전기(GDR)

K 국 제 전 기

- 본 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609
Tel. 032)874-3522
- 공 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730-2
Tel. 031)983-0522 Fax. 031)997-7308
- 특약점 : 영일ENGINEERING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258-80
Tel. 042)221-1571 Fax. 042)221-1573